

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대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강진군은 지난 14일 종합운동장 내 웰니스푸소센터에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 선정을 대비해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먼 지역의 부족한 소비처와 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강진군 인구정책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안내했으며, 사업을 시행 중인 전북 순창군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 구준희 이사장은 기본소득과 연계한 생활서비스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 지

원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먼 지역의 제한적인 기본소득 사용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풍구장터’ 사례를 공유했다. 풍구장터는 지역 농산물과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장터로,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다.

참석자들은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역할과 관련 지원사업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설명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조직 간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운재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설명회 사진

/강진군 기획홍보실 제공

/서용운 기자

무안, 청년문화센터 건립
협약 체결

무안군은 청계농공단지가 산업통상부 주관 ‘2026년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계농공단지는 제조업과 도자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무안군은 국비 40억 원과 지방비 18억 원 등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청계농공단지 내에 지상 3층 규모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군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와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목포시, 고향드림 정식 오픈



목포시청 전경 사진

/목포 시청 제공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와 기부자 편의 증진을 위해 디지털 상생 플랫폼 기업 ㈜액티부키(대표 이동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플랫폼 ‘고향드림’을 지난 13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목포의 농수특산물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위키브’, 올해 9월 ‘웰로’에 이어 ‘고향드림’을 추가해

기부자가 선호에 따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향드림’은 농어촌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 확인부터 기부, 답례품 신청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목포시는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목포사랑패스’를 발급해 주요 관광시설 5곳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영양의 날’ 맞아 건강 식생활 캠페인 전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영양의 날을 맞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을 맞잡고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함평군은 15일 “보건소와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14일 관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의 아침 결식을 낮추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건소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은 성장기 어린이와 군민을 대상으로 아침밥 챙겨 먹기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홍보했다. 또한 함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아

동복지시설 3개소 등 총 23개 시설에 인공 감미료와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제철 과일과 견과류, 잡곡 등을 활용하여 신선한 자연 식재료로 구성된 아침 대용 식품을 제공했다. 함평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아침밥 먹기와 시설별 맞춤형 영양교육을 홍보해 가정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신안, 교통사고 예방 안전
장치 무상 지원

신안군(군수 김태성)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후면 조명등’ 무상 설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에 이동하는 차량과 이동수단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군민의 교통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급가속을 제한해 사고 예방을 돕는 안전장치다. 군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50대에 무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차량에 따라 장치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박성태 기자

영암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영암군이 지난 14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암군이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회장 조광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이만진 영암군의회 의장, 시·군 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니어합창단과 에어로빅 등 식전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어르신들이 참여한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 성공 기원 카드섹션과 노인의 날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다. 기념 영상은 영암시니어클럽 ‘달빛마루 오네오(On-Air)’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 제작했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장수 어르신 26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영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들은 장수 어르신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세대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철 기자

